

# 이주빈 시인, 고향 흑산도에 전하는 '첫 번째 편지묵음'

첫 시집 '내 고향 흑산도 푸르다 지쳐...' 초등 5년때 목포 유학 외로움 달래려 창작 오마이뉴스 등 20년 경력 '시인이 된 기자' "참혹했던 전두환 신군부 시절 다시 재연" 언론인·예술인, 폭력과 싸워야하는 존재

"섬에는 어머니와 유년의 벗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운 것들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그 섬에 갈 수 있고, 그 바다를 건너 외지로 떠납니다. 선장은 그렇게 떠난 이들을 배웅하는 곳이자 마중하는 곳이죠."

이주빈 시인은 10일 전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펴낸 첫 시집 '내 고향 흑산도 푸르다 지쳐 검은 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작품에 투영된 감정과 시각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제목 그대로 제 고향인 흑산도와 그 섬을 둘러싼 바다, 섬으로 가는 육지의 선장이 시가 탄생한 주요 공간이다. 시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기다림, 그리움, 아련함 등의 기본 정서가 깔린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달 발행된 이 시인의 첫 시집 '내 고향 흑산도 푸르다 지쳐 검은 섬'은 저자가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던 섬 '흑산도'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함을 담아 육지에서 써서 보내는 편지와 같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흑산도에서 목포로 육학 유학을 갔는데 그때부터 편지를 많이 쓰기 시작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친구들에게 그리움을 담아 편지를 쓰는 건 외로운 육지 생활을 달래는 가장

친근한 방법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 시절 문예부 활동을 하며 시를 쓰게 됐고 지금도 편지를 쓰는 시를 계속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간된 이 시인의 첫 시집은 그의 첫 번째 편지 묵음인 셈이다.

그간 페이스북에 간간히 시를 올렸지만, 시인으로 활동했던 적은 없었던 그가 시집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강제운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인이기도 한 강 소장의 소개로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시집을 출판하자는 제안을 먼저 받게 된다.

"꽃을 기다리는 날에는/뒀들 뻐비꽃도 피지 않았다//파도를 기다리는 날에는/잔놀조차 일지 않았다.//기다리는 날에는/모두 오지 않았다//객선머리에 머리를 덩덩 뺏으며 통곡을 해도/바닷물에 심장을 북북 갈아 피를 토해도//어미는 오지 않았다/사랑은 오지 않았다"

이번 시집에 실린 시 '기다리는 날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에서 그는 지독한 쓸쓸함 속으로 자신해 들어가 돌아오지 않을 존재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시적 언어로 풀어낸다. 불편함과 고통함을 대면하다 못해 그에 상응한 존재들과 하나 되려는 결단을 이 작품이 답변해 주고 있다.

류근 시인은 이 시인에 대해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되 불현듯 오래된 악기가 불러 주는 음유가 되는 사람, 생애적 시인이란 이런 것이다"며 호평했다.

이 시인은 '시인이 된 기자'로도 불린다. '오마이뉴스'에서 창간 첫 해인 2000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기자로 20여년간 활동했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부



지난달 22일 광주 남구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주빈 시인.

부장·영국 특파원 등을 역임하며 언론계에 몸담았던 그에게 최근 벌어진 '12·3 내란 사태'는 기자의 시각으로도 용납할 수 없고 시인으로서도 용인할 수 없는 극렬한 폭력의 재현이었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해 "대학생 시절과 30~40대 기자 생활의 많은 기간을 광주에서 보냈다. 군사계엄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공동체를 유린하는 가장 극렬한 폭력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반란이 잉태한 국가 폭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의 세월을 겪은 세대가 그 참혹했던 시절이 21세기에 반복되는 걸 지켜봤고 젊은 세대는 교과서와 자료를 통해서만 마주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실시간으로 재현되는 걸 목격했다. 그저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을 글로 쓰는 건 우리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이전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인권이다. 이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제도도 침해할 수 없다"며 "이를 침해하는 폭력과 협박 앞에서 굴하지 않는 것이 양심이고, 이 양심의 명령에 따라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사회적 존재가 바로 언론인과 예술가"고 강조했다.

폭력 앞에서 굴종하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며 협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는 것이 이 시인의 신념이다.

현재 그는 고향인 신안에서 섬의 문화와 역사, 생태 자원을 지역 자산으로 만드는 '섬문화다양성' 활동과 기후위기 시대를 태평양 권역 시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대응하는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시인은 아직 구체적인 차기작 계획을 구상하고 있진 않지만, 일상에서 찾아오는 모든 감정과 배움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정련하겠다고 전했다.

첫 시집에서 버려지고 남겨진 존재들과 하나 되려는 것의 의미를 고찰했던 그가 차기작에서는 어떤 에환의 울림을 선사할지 주목된다. **박찬기자**



지난 9일 '2024년 4분기 휴관일 특별 초청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 '4분기 휴관일 특별 초청행사'

선예학교 등 100여명 초청 다양한 과학문화나눔 진행

국립광주과학관은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와 지난 9일 과학관에 선예학교, 잠조은장애인주간보호센터 100여명을 초청해 '2024년 4분기 휴관일 특별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이번 행사에 앞서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소재 특수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았고, 선예학교와 잠조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2개 기관을 초청했다.

과학관으로 초청된 대상자들은 과학관 직원들과 함께 낮에도 밤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천체투영관, 로봇 댄스공연, 마술공연 등을 관람하고 과학관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초청행사의 담당자인 윤원찬 홍보협력실 연구원은 "국립광주과학관은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와 함께 2016년부터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후원사업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는 2016년 창립 이래 분기별 '휴관일 특별 초청행사' 외에도 매년 '찾아가는 과학관', '과학꿈나무 초청 사업' 등 도서지역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과학문화확산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후원참여 방법은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 누리집 (<http://www.science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기자**

## 대담미술관, '담양사랑 환경사랑' 특별전 개최

22일까지 담양 대담미술관서 담주초 학생·교직원·학부모 참여

담양 대담미술관은 담주초등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한 '담양사랑 환경사랑' 특별전을 오는 22일까지 개최한다.

'담양사랑 환경사랑'을 주제로 담주초등학교 전학년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 3개월간 캔버스에 아크릴물감으로 그리기 △대나무등에 채색하기 △대나무컵받침 제작해 채색하기 △타일에 그림그리기 △대나무발에 장래희망 꾸미기 등을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의 결과물들이다.

대담미술관은 담주초등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이 담양지역의 자연환경과 예술을 연결한 교육과정을 통해 환경 보존의 가치를 배우는 데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예술전문강사의 지도로 다양한 예술 기법을 익히고, 환경메시지를 담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었다.



지난 9일 오후 2시에 대담미술관에서 열린 특별전 '담양사랑 환경사랑' 오픈식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담미술관 제공

이번 특별전에서는 담양의 자연풍경과 대표음식, 특산물,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담은 캔버스작품 50여점과 타일작품 30여점, 대나무 컵받침 20여점, 대나무 전등 10여점, 대나무발 1점 등이 전시된다.

지난 9일 오후 2시에 열린 오픈식에서 담양과 환경을 사랑하는 담주초등학교학

생들의 제작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영희 담주초등학교 교장은 "이번 전시는 담양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한 소중한 결실"이라며 "많은 분들이 관람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표현과 환경에 대한 고민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기자**

## 생애 첫 오페라를 ACC서... '어린이 오페라 - 사랑의 묘약'

ACC재단, 난생처음 시리즈 21~22일 ACC 어린이극장

인기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으로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재단)은 ACC 난생처음 시리즈 '어린이 오페라 - 사랑의 묘약'을 오는 21~22일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이탈리아의 작

곡가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유쾌한 웃음과 아름다운 멜로디, 재치 넘치는 이야기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시골의 순수 청년 네모리노가 몰래 짝사랑하는 아름다운 농장주인 아가씨 아디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가져 '사랑의 묘약'을 구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이번 공연은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대사들 노래하듯 부르는 '레지타티보'를 한

국어로 번역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또 아리아와 중창은 원어인 이탈리아어로 구성해 원작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21일과 22일 이틀간 오후 2시에 공연하며, 5세 이상이면 관람 가능하다. 관람료는 1만5000원이며, ACC재단 누리집 ([www.accf.or.kr](http://www.accf.or.kr))에서 예매할 수 있다. **박찬기자**

진일보 @jnibo 진일보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